지난 월드컵 직전 영국 전지훈련 도중 왼쪽 발목 부상을 입고 얼음 찜질 중인 박지성의 모습. /연합뉴스

발목 인대 파열…3개월 못뛴다

챔피언스리그·대표팀 경기 출전 불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박지성(25·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발목 인대가 파열되는 큰 부상으로 앞으로 3개월이나 그라운드에 설 수 없게 됐다.

맨유 구단 공식 홈페이지(www.manutd.com)는 14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2006~2007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차전 셀틱과 홈 경기 직전 박지성이 출전 엔트리에서 제외됐다고 발표하면서 그가 왼쪽 발목 인대가 찢어지는 부상을 때문에(tearing ligaments in his left ankle) 3개월 결장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박지성은 빠르면 현지 시간으로 14일 수술을 받게 될 것이라고 구단은 확인했다.

지난 해 5월 네덜란드 프로축구 PSV 에인트호벤에서 맨유로 옮겨온 뒤 49경기를 소화한 박지성은 이로써 12월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경기에 출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지성은 지난 10일 토튼햄과 프리미어리그 시즌 4차전에 교체 투입돼 발목을 다쳤다.

애초 가벼운 타박상을 당한 것으로 알았지만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으로 정밀 검사를 해본 결과 인대가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성은 지난 1월과 5월 오른쪽 무릎과 발목을 다쳐 짧은 기간 결장한 적이 있고 지난 6월 독일월드컵 개막 직전 왼쪽 발목을 다친 적이 있지만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심한 부상을 당한 것은 이적 이후 처음이다.

영국 BBC 방송 인터넷판도 '맨유가 박지성의 부상으로 타격을 입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박지성의 소식을 전했다.

알렉스 퍼거슨 맨유 감독은 "박지성이 토튼햄전에 교체 투입된 뒤 종료 직전 왼쪽 발목을 다쳤다. 박지성의 부상은 선수 본인은 물론 우리 팀에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지성이 12월 중순까지 결장할 경우 프리미어리그 12~13경기, UEFA 챔피언스리그 5경기 등 모두 17~18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베어벡호도 다음 달 시리아와 2007 아시안컵축구 예선 5차전을 비롯해 A매치 3경기가 잡혀있어 이 경기에도 나서지 못한다.

한편 박지성의 부상 정도에 대해 에이전트사인 JS리미티드의 김정수 팀장은 "박지성은 한국시간으로 오늘 오후 맨체스터 외곽에 있는 병원에서 찢어진 발목 인대를 접합하는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박지성 없는 맨U 첫 승

솔샤르 결승골…셀틱 3대2 제압

리옹, 강호 레알 마드리드 꺾어

박지성(25)의 소속 팀인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2006~2007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셀틱(스코틀랜드)을 제물로 첫 승을 거뒀다.

맨유는 14일 새벽(이하 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 경기장에서 열린 UEFA 챔피언스리그 F조 1차전 셀틱과 홈 경기에서 전반 프랑스 국가대표 공격수 루이 사아의 연속골과 후반 초반 베테랑 골잡이 올레 군나르 솔샤르의 결승골에 힘입어 3-2 승리를 거뒀다.

박지성의 부상 결장으로 일본 대표팀 미드필더 나카무라 순스케(셀틱)와 한·일 대결은 불발됐다. 올랭피크 리옹(프랑스)은 챔피언스리그 9회 우승에 빛나는 호화군단 레알 마드리드(스페인)를 2-0으로 침몰시켰다.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레알 마드리드에 3-0 대승을 거둔 리옹은 이날 제를랑 경기장에서 열린 E조 1차전에서 프레드와 티아구의 연속골로 대어를 낚았다.

G조의 아스날(잉글랜드)은 질베르투 실바의 페널티킥 골과 새로 영입한 체코 대표 토마스 로시츠키의 골로 함부르크(독일)를 2-1로 제압했다.

맨유와 같은 F조 벤피카(포르투갈)와 FC 코펜하겐(덴마크)은 득점없이 비겼다.

AC 밀란(이탈리아)은 H조 첫 경기에서 필리포 인차기, 카카의 활약으로 AEK 아테네(그리스)를 3-0으로 완파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웨인루니가 14일 새벽 올드 트래퍼드 경기장에서 열린 UEFA 챔피언스리그 F조 1차전 셀틱과의 홈 경기에서 셀틱의 스테판 맥마누스의 태클에 걸려 넘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FIFA 랭킹 49위 3계단 올라

한국 축구의 국제축구연맹(FIFA) 세계랭킹이 3계단 올라 50위권 안에 진입했다.

13일(한국시간) FIFA가 발표한 9월 랭킹에 따르면 한국은 랭킹 포인트 580점으로 49위에 자리했다. 이번 랭킹은 각 대륙별 축구 선수권대회 예선 성적이 반영된 것이다.

아시아에서는 호주가 38위가 가장 높았고 지난 2일 아시안컵 예선에서 베어벡호와 비긴 이란이 43위, 일본이 47위로 한국은 아시아에서 여전히 네 번째에 머물렀다.

브라질이 여전히 전체 1위를 지켰고 프랑스,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이탈리아가 2~5위, 네덜란드, 체코, 독일, 포르투갈, 스페인이 6~10위를 차지했다.

지난 주 2008 유럽선수권대회(유로2008) 예선에서 프랑스에 1-3으로 패한 독일월드컵 우승국 이탈리아는 랭킹이 2위에서 3계단 하락했다.

다음 달 8일 3기 베어벡호와 A매치를 갖는 가나는 한국보다 26계단 높은 23위에 랭크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 체육중 배가람 3관왕 영예

전국 초·중 체조대회

배가람(광주 체육중 2)이 제23회 포스코재단이사장배 전국 초·중학교체조대회에서 3관왕에 올랐다.

배가람은 14일 포항제철중학교 체조장에서 열린 남중 개인종합에서 80.80을 기록해 금메달을 목에 건 후 평행봉과 철봉에서도 각각 금메달 연기를 펼쳐 3관왕에 올랐다.

배가람은 링에서도 금메달에 도전했으나 15.20을 얻어 아쉽게 동메달에 머물렀다.

양학선(체육중 2)은 도마에서 13.40점의 연기를 펼쳐 은메달을 획득했으며 광주체육중은 남중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 서구청 김미정 전국펜싱선수권 '금'

김미정(광주시 서구청)과 김선화가 제11회 김창환배전국남녀개인펜싱선수권대회에서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미정은 14일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열린 여자일반 에뻬결승에서 팀 동료 김선화를 15-13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스포츠중계

15일(금)

▲메이저리그〈미네소타-클리블랜드〉(07 : 55·Xports)

▲레코파〈상파울루FC-보카주니어〉(09 : 50·SBS스포츠)

▲한국여자프로골프 SK엔크린 인비테이셔널 1R(13 : 50·MBC)

▲장애인 체육대회(14 : 10·KBC), (14 : 40·KBS1)

▲KOVO컵 양산 프로배구대회〈현대건설-흥국생명〉(14 : 00·KBS SKY Sports), 〈대한항공-현대캐피탈〉(16 : 00·KBS SKY Sports)

▲프로야구〈SK- KIA〉(18 : 15·SBS스포츠), (18 : 30·MBC ESPN)